

하나님은 절기를 통해 자녀와 객과 고아와 과부들도 다 모여 이 날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모여 절기를 지내는 동안 그들은 하나의 공동체가 되었고, 한 마음으로 결속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시면서 강조한 것이 즐겁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계명을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더 큰 기쁨을 누리게 하시려고 절기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절기는 축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즐겁게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이는 시간 속에 무엇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과 기쁨이 가득한 추석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하는 즐거움을 누리고, 더 나아가 내 이웃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는 은혜의 시간들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이 거룩하고 복된 시간 속에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 | 찬송가 | 559장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있고

1.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2.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 있고  
기쁨과 설움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3.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 <후렴>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 하루

#### | 주기도문 |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 추석감사예배

2024. 9. 17.

#### | 신앙고백 | 사도신경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 | 찬송가 |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1.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2.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 주신다
  3.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 주신다
- <후렴>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양  
철을 따라 풀을 먹여 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 | 기도 | 말은이

## | 성경봉독 | 신명기 16장 13-17절

- <sup>13</sup>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 <sup>14</sup>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 <sup>15</sup>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소출과 네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 <sup>16</sup>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일 년에 세 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뵈옵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뵈옵지 말고
- <sup>17</sup>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 | 설교말씀 | 감사와 기쁨을 나누는 믿음의 가정

구약성경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3대 절기가 등장합니다.

첫째는 유월절입니다. 이집트에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둘째는 맥추절입니다. 첫 열매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앞으로도 우리 삶을 인도하실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셋째는 초막절입니다. 일주일 동안 초막을 지어놓고 그곳에 거하면서 일년간의 결실을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광야생활 40년 동안 동행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절기들을 지킬 것을 명령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절대 잊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 정체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이 절기들 가운데 우리의 추석과 비슷한 절기는 초막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날은 한 해 동안 수확한 모든 곡식을 성전으로 가져가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신분, 지위, 경제적 능력 등 어떤 특별한 조건과 관계없이 여러 사람과 함께 어울려서 축제를 보냅니다.

오늘 우리는 초막절의 의미와 연결하여 우리의 추석을 믿음 안에서 복되게 지낼 수 있도록 두 가지를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본문 13절 말씀에 <sup>13</sup>“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추수를 마친 후에 반드시 감사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추수할 결실이 많든지, 적든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주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를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감사는 선택입니다. 그리고 감사는 향기와도 같아서 감사를 표현하면 할수록 더 큰 감사가 전해 집니다.

‘감사의 분량은 곧 행복의 분량이다’ 라는 시인의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그만큼 풍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농부들은 농부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은 하늘에 대해 늘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농사는 절대적으로 혼자 힘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적절한 태양과 때에 따른 비, 좋은 기후 등 하늘의 도움이 있어야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농부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기에 하늘에 기도를 올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65편 9, 10절 말씀을 보면 <sup>9</sup>“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운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sup>10</sup>“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이 고백은 농사의 절대적인 힘은 하늘의 은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농부들은 농사를 지어 거둔 첫 곡식을 반드시 먼저 하늘에 제물로 드리며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웃과 함께 나누고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 수고해서 얻은 열매로 음식을 만들어 나누며 즐거워하고 기뻐했습니다.

**둘째,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본문 14, 15절 말씀에 <sup>14</sup>“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sup>15</sup>“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소출과 네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삶의 중심은 가정입니다. 가정이 안정되고 건강하면서 그 역할을 잘하게 되면 우리의 삶 또한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신앙이 건강해지고 기쁨과 행복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곳은 천국과도 같은 사랑이 넘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도 가족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